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등산 '노무현길' 되살아날까

증심사~장불재 2011년 명명
광주시·노무현 재단 복원 요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선례없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와 광주시가 '무등산 노무현길' 탐방로 명칭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 올랐던 무등산 구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11년 법정 탐방로 명칭을 '무등산 노무현길'로 변경했지만,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노무현재단 측은 탐방로 명칭 회복과 함께 해당 구간에 기념 표지판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무등산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는 무등산 증심사~당산나무~중머리재~장불재 구간(3.5㎞)의 법정 탐방로 명칭을 '무등산 노무현길'로 변경하는 것을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과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무등산이 도립공원 시절이던 지난 2011년 11월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공원법에 따라 기존 '8번 탐방로'에서 '무등산 노무현길'로 명칭이 바뀌어 지정·고시됐다.

지난 2007년 5월 19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최초로 무등산에 올랐던 노 전 대통령을 기념하자는 노무현재단과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실제 노 전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 걸었던 구간을 노무현길로 명명한 것이다. 탐방로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제안한 '무등산 노무현길'이 채택됐다. 1~15번 탐방로 중 유일하게 8번 탐방로(증심사~장불재)만이 인명을 딴 한글 탐방로로 변경됐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2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면서 '노무현길'은 무등산의 65개 법정 탐방로 가운데 하나인 '8번 탐방로'로 되돌아갔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접한 노무현재단 측은 지난 5월부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측에 탐방로 명칭 회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명칭 회복이 더디자 지난 10일에는 광주시도 노무현재단과 일부 시민들의 민원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 노무현길 명칭 회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힘을 보태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의 경우 특정 인사의 이름을 딴 법정 탐방로가 존재하지 않는데다 명칭 변경을 위해선 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통과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서다.

무등산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승격 과정에서 '무등산 노무현길' 존치 요청을 해온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없었던 탓에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노무현재단과 광주시 측에서 요청을 해온 만큼, 선례가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박시종 운영위원장은 "국립공원 무등산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 공모를 통해 변경됐던 탐방로 명칭을 회복하고 무등산에 올랐던 노 전 대통령을 잊지 말자는 게 노무현재단 본부와 지역위원회의 입장"이라며"무등산 안내 지도에 노무현길을 표기하고, 탐방로 시작과 끝, 노 전 대통령이 산상 연설을 했던 장불재 바위 옆에 표지목이라도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아파트 심야 족구경기 가능한가

족구동호회 만들며 소음 갈등
입주민들 구청·건설사에 민원
체육시설 용도 놓고 해석 분분

'족구 갈등.'

광주시 동구의 H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급기야는 주민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구청과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두 기관이 체육시설 용도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갈등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9개동 654세대)는 배드민턴장 용도로 설계된 체육시설(길이 20m, 폭 12m)을 갖추고 있다.

갈등은 지난 5월 입주민 37명이 '족구동호회'를 만들면서부터 비롯됐다. 족구동호회 회원들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체육시설에서 밤늦게까지 족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체육시설이 놓인 이상한(?) 위치가 갈등의 발단이 됐다. 이 체육시설은 마주보고 서 있는 A동과 B동 사이에 놓인 것도 모자라 한쪽으로는 방음벽이 가로막고 있고, 반대쪽에는 또 한 동의 아파트가 있어 사면이 벽에 막힌 곳에 있다. 때문에 공이 튀기는 소리 등이 울림과 공명현상으로 인해 증폭, A동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 체육시설과 A동의 거리는 불과 10m다.

■ 아파트 단지 족구장 위치도

A동을 사랑하는 주민 모임 관계자는 "공 튀기는 소리와 회원들의 '화이팅'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집을 두고도 자녀를 독서실에 보내는 등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3차례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전달했는데 여전히 평일 야간과 휴일 오전에 족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족구 동호회 대표는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들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고 해서 지난 6월부터는 수요일 오후 8시~9시30분, 일요일 오전 9~12시에만 운동을 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고 맞섰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A동 주민들은 건설사에 방음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건설사는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으로 인·허가가 난 곳으로 족구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각 임차인들이 원만히 해결했으면 한다"며 사실상 주민들에게 책임을 미뤘다. 결국 A동 주민들은 지난 10일 동구청에 배드민턴장을 족구장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바탕으로 "법에 명시된 45개 종목은 아니지만 시행령에 표기된 '그 밖에 시설'에 족구장이 포함된다"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행령에 명기된 45개 종목에는 배드민턴·골프장·궁도장 등은 있지만 정작 족구장은 없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체육시설과 주택의 '이격 거리'가 명시돼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A동 주민들은 "동과 동 사이에 체육시설이 있는 아파트는 어디에도 없다"며 "동구청에서 주민 불편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사용 승인을 해줬으니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한가위 나눔의 직거래장터 16일 일곡동새마을부녀회가 광주시 북구 일곡동주민센터 주차장에 개장한 '한가위 직거래장터'에서 주민들이 과일 등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장터는 17일까지 열리며 판매 수익금은 연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협, 구명조끼 중요성 알고도 보급 사업 폐지"

황주홍 새정치 의원 지적

수협이 어민들이 사용하는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알고도 올해 마사회의 지원금 중단을 이유로 보급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이 지난해 3월19일부터 6월10일까지 어민 5531명을 조사한 결과 91.9%에 달하는 5082명이 "구명조끼가 해상 추락시 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받아 1인 어선이나 소형 어선에 구명조끼를 보급해왔다. 지난 2012년 338개를 보급했던 수협은 2013년 6014개, 2014년 5127개 등으로 보급을 확대했으나 올해 지원금이 끊기면서 이 사업은 지자체로 넘어갔다.

올해는 5000개를 계획했지만 보급 현황은 미미한 수준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돌고래호 13번째 시신 수습
14번째 사망자 추정 시신도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 전복사고 발생 12일째인 16일 13번째 사망자 시신이 수습됐다. 또 14번째 사망자로 추정되는 시신도 발견됐다.

13번째 사망자는 이모(44·경남 창원)씨로 가족들이 신원을 확인했다. 이씨의 시신은 돌고래호가 뒤집힌 채 발견된 추자도 섬생이섬 남쪽 해상에서 직선거리로 4.5㎞ 떨어진 지점에 있었다.

해경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해난심판원 등 16명으로 구성된 감식반은 17일 오전 9시부터 추자도 신양항 추자해양경비안전센터 앞에서 돌고래호 선체에 대한 합동 정밀감식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남의 벤츠 몰고 "내 차인 줄 착각"

쌍나팔

○…열쇠가 꽂혀있던 타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잠시 운전한 뒤 몰래 가져다 놓고서 "내 차인 줄 착각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9)씨는 지난 6일 새벽 4시께 광주시 서구 시청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김모(여·28)씨의 벤츠 승용차를 1시간 가량 몰고 다닌 뒤 50m쯤 떨어진 곳에 가져다 놓은 혐의.

○…인근 CCTV 화면 분석과 탐문 수사로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새벽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내 차(인피니티)로 잘못 알고 벤츠를 몰고 갔다. 집에 가던 중 문득 내 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철주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확정…군수직 유지

선거구민인 기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무안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거법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 군수실에서 기자 A씨에게 모친 장례식에 문상을 가지 못했다며 현금 20만원과 상품권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0월 군청 상황실에서 직원을 시켜 B기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군수가 두차례 돈을 건넨 점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군수가 직원을 시켜 B기자에게 돈을 건넨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5타경 6812	1	서구 상무공원로 35, 101동 11층 1101호 [치평동,상무1차우미아파트] 59.76㎡	아파트	139,000,000 139,000,000	
2015타경 9729	1	북구 반룡로 32, 101동 3층 315호 [용봉동,호반아파트] 59.94㎡	아파트	96,000,000 96,000,000	
2015타경 60540	1	서구 마재로 21, 103동 16층 1606호 [금호동,중흥아파트] 59.55㎡	아파트	162,000,000 162,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타경 4533	1	서구 풍암동 872-7 176.6㎡	대	635,352,500 635,352,500	일괄매각,2015타경10743[중복]
		동소 872-8 176.7㎡	대		
		동소 872-7 [19가구] 1층96.4㎡[7가구] 2층96.4㎡[7가구] 3층96.4㎡[5가구]	다가구주택		
2015타경 7419	1	남구진월동365-97나동 지4층2750.35㎡ 지3층3014.15㎡ 지2층2328.59㎡ 지1층2023.31㎡ 1층2137.49㎡ 2층2071.32㎡ 3층1365.97㎡ 4층1158.93㎡ 5층426.44㎡ 6층372.63㎡	종교시설	25,503,065,100 25,503,065,100	건물만매각
2015타경 7785	1	곡성군 석곡면 농파리 389-1 145㎡	대	23,664,200 23,664,2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권호탁 지분전부
		곡성군 석곡면 농파1길 16 69.07㎡ 제시외 창고 3.75㎡	단독주택		
2015타경 8252	1	곡성군 입면 금산리 152 490㎡	단독주택	99,011,000 99,011,0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동소 152 98.85㎡ 제시외 창고 등 48㎡	단독주택		
2015타경 9095	1	남구구소동183-1 182㎡ 제시외창고등28.3㎡	대	63,175,910 63,175,91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
		동소 188-1 397㎡	대		
		동소 188-1 81.09㎡ 부속건물 부속64.68㎡ [현황42.8㎡] 57.6㎡ 돈사 4.2㎡ 제시외 가추 등 88.6㎡,태양열시설 1식,수목	단독주택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6706	1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산24 5455㎡[김재옥 지분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임야	14,910,306 14,910,306	분묘소재
	2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산13 3967㎡[김재옥 지분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임야	12,165,436 12,165,436	분묘소재
2015타경 6928	1	담양군 무정면 안평리 산75-4 3728㎡	임야	32,267,200 32,267,200	일괄매각
		동소 산75-5 3550㎡	임야		
		동소 산75-7 2117㎡	임야		
		동소 산75-8 1504㎡	임야		
2015타경 8252	2	곡성군 입면 서봉리 906-3 1292㎡	답	18,088,000 18,08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 8443	1	영광군 영산면 상계리 736 2096㎡	답	15,720,000 15,72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759-2 1886㎡	전	17,539,800 17,539,8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분묘소재
	3	동소 1471-2 1779.9㎡	답	17,799,000 17,799,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 9378	1	남구 행암동 산81-16 9193㎡[양재훈지분전부]	임야	128,702,000 128,702,000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	남구 행암동 390-25 631㎡[양재훈지분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전	18,930,000 18,93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 9958	1	나주시 성북동 8-39 20㎡	대	4,240,000 4,240,000	매각대상아닌건물소재
2015타경 60410	1	북구 각화동 113 211㎡	전	85,694,000 85,694,000	
[기타]					
2014타경 29214	1	광산구 월전동 941 3332.2㎡	공장용지	1,855,029,100 1,855,029,1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2015타경1046[중복]
		광산구 평동산단로143번길28-5 931㎡ 부속건물 사무실1-3층각199.5㎡ 공장저당법제6조목록 제시외창고등244.16㎡,기계기구5식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채권자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5. 10. 2. [금]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5. 10. 6.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원칙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증명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입수으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변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등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 · 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기능한 정보는 입찰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하거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1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